

전남서 4월 꽃길여행 즐기세요

목포 유달산 꽃정원

광양 서천 꽃길·진도 관매도 유채 도, '안전한 거리두기' 관광지 추천

전남도는 봄꽃 향연이 펼쳐지는 4월을 맞아 목포 유달산 꽃정원, 광양 서천 꽃길, 진도 관매도 유채단지 등 '안전한 거리두기'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 유달산 꽃 정원은 지상의 꽃길, 바다 위 꽃길, 천상의 꽃길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주변에 흐드러지게 핀 꽃이 정원의 규모를 넘어 파도를 치듯 거대한 물결을 이루는 형상이다. 목포에는 꽃구경만큼이나 환상의 경치를 자랑하는 목포해상케이블카와 레트로 여행지인 목포 근대 역사관, 연희네 슈

퍼, 시화골목, 스카이워크, 고하도 해상데크길 등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광양시 서천 꽃길은 전남의 대표 봄꽃 여행지다. 촘촘히 줄지어 선 뽕나무마다 벚꽃이 만발하다 못해 하늘을 덮어버린 벚꽃터널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순백의 벚꽃 세상이 펼쳐져 사람도 차량도 느릿느릿 움직이며 연인과 가족이 함께 사진 찍느라 분주하다. 광양시민의 산책코스로도 사랑받고 있다. 진도 조도의 관매도는 4월이면 노란 유채꽃 천국으로 탈바꿈한다. 4D 영화처럼 나를 향해 힘차게 물려오는 작각이 들 정도다. 관매도는 관매해변, 관매습지, 장산편마을을 따라 에메랄드 해변의 모래사장을 밟다 보면 서해와 남해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햇빛을 피해 소나무

숲길로 가면 11만5000여㎡의 해안 송림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다. 관매마을 중심에는 높이 18m, 가슴둘레 3.41m의 후박나무(천연기념물 제212호)에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주변에 윤림산방, 세방낙조, 신비의 바닷길, 솔비치 진도, 송가인 집 등 명소가 즐비하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잘 지키면서 봄꽃이 흐드러진 꽃길 여행 '꽃길만 걷게 해줄게-'를 즐기며 코로나 등 일상에서 지친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월별 추천관광지 및 관광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영상은 전남도 종합 관광정보시스템인 '남도여행길잡이'(www.namdokorea.com)에서 볼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김재광)는 연구소 내 숲을 국민휴식처로 개방해 이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은 전문가의 엄정한 평가와 최종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는 상으로, 올해 290여 기업과 기관이 신청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1922년 광주 임업묘포장으로 출발해 1975년 현재의 위치인 나주 산포면으로 이전했다. 사진은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향나무길 전경.

사업계획·관리...주민 주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든다

전남도청서 범도민 출범식

전남도는 지난 30일 도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김한중 도의회 의장, 유근기(곡성군수) 전남 시정군수연합회장을 비롯해 으뜸마을로 선정된 마을 대표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범도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을 널리 알리는 자리였다. 올해 으뜸마을로 선정된 1000여 마을은 매년 300만원씩 3년간 총 900만원을 마을가꾸기 사업비로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270억원을 들여 총 3000개의 으뜸마을을 육성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한중 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30일 오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청정전남 으뜸마을 범도민 출범식에서 손 편찬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남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자원을 보전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자"며 " 으뜸마을이 천 개, 이천 개로 늘면 후진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는 살기 좋은 전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도민 스스로가 공감과 소통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면서 청정자원 관리를 위해 사업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유기농 자재지원 사업비 전국 최대 예산 투입

전남도 올 41억원 지원

전남도가 지역 증진 등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녹비종자, 유기농업 자재 구입비로 올해 4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유기농 인증면적이 무농약을 앞지르면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1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국비 31억5000만원 중 16억2000만원을 확보,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유기농업 자재는 친환경농업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대신한다. 제충국 등 천연물질과 천적을 활용해 병충해 관리, 작물생육 등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재다. 헤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등 녹비종자 5종은 잡초 생장을 억제하고, 유기질 함량을 높여 지력을 증진하는 등 농업환경 보전 효과가 뛰어나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중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히 납부한 농가다. 유기인증 농가는 ha당 200만원, 무농약은 150만원까지 유기농업 자재 구입비를 지원받는다. 녹비종자는 신청한 전량 지원된다. 지난해 11-12월 신청해 올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유기농업 자재 및 녹비종자를 구입한 후 시군에 공급확인서와 자부담 선지급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군 담당자가 확인 후 자재 구입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정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인된 기관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유기농업 자재 등을 적기에 공급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각종 농기자재는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68년 광주 시대 마감...전남공무원교육원, 강진 신청사서 새 출발

전남도는 공무원교육원이 68년간의 광주시대를 마감하고 강진으로 이전해 인재개발원(사진)으로 명칭을 변경, 4월 1일부터 새roles 업무를 시작했다. 전라남도인재개발원은 1953년 개원 이후 68년간 전남의 핵심인재를 배출한 전남인재교육의 메카다. 광주 양림동에서 '전남공무원훈련소'로 시작한 후 1963년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해 능성동으로 이전했으며, 1979년 매곡동으로 옮겼다가 이번에 강진에서 등지를 들었다. 강진 새 청사는 지난 2018년 9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남개발공사에 위탁해 지난 3월 준공했다. 총사업비 478억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1만3952㎡에 지상 3층 규모로 업무시설인 본관, 교



육시설인 인재관, 숙소인 행복관, 다목적실인 보람관, 4개동을 갖췄다. 현장중심의 인재 양성을 위해 토론형, 참여형 교육이 가능한 10개 소형 강의실과 12개 분임실,

100여 명을 수용하는 중대형 강의실 3개, 300여 명을 수용하는 대형 강의실 등 다양한 교육시설과 LED스크린, 전자칠판, 화상강의가 가능한 동작 추적 카메라(PTZ카메라) 등 최첨단 교육장비를 갖췄다. 교육생의 편의 강화를 위해 건물 4개동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고, 본관 1층에 커뮤니티스텝 휴게공간을 만들어 교육생이 계단에 앉아 편하게 책도 읽고 소통하도록 했다. 전국 사·도 중 처음으로 개발원 내 갤러리를 만들어 도민에게 개방하고, 기존 두충나무 숲과 연계한 1km 산책로를 조성해 지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휴양공간으로 꾸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5개소 선정 지원

5월초부터 2차 공모 추가 실시

전남도가 2021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으로 15개소를 선정,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올해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은 지난 1월부터 예비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한 법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와 전남 사회적경제 실무자 및 사회적경제 육성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심사기준은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인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과 함께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중점을 뒀다.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이거나 출자자 중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경우 등에 한해 가점이 부여됐다. 선정된 예비마을기업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자

산취득비 등에 사용하도록 2000만원 내외 보조금과 판로·경영 컨설팅이 지원된다. 법인이 아닌 단체가 선정된 경우, 지원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이번 심사로 선정된 사업 규모가 올해 목표에 미치지 못해 오는 5월 초부터 2차 공모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시책사업이다. 올해 행안부형 1차 공모에 선정된 기업 19개소 중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을 거쳐온 곳은 목포 시네마MM, 해남 땅끝발전농업농조합법인 등 총 12개소에 달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Sun e Biong Solar Energy